

“이웃 위해 살며 성불하자”

<1면에서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최상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불자들은 성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성불에 이를 수 있는가?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전생에 상불경보살이었음을 밝히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상불경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갖가지 선근을 심었다. 그리고 그 뒤 다시 수 천 수 만 수억의 부처님들을 만나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서 이 가르침을 설하였기에 공덕을 다 이루어 성불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수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갖가지 선근을 심는 것과, 수 천 수 만 수억의 부처님들을 만나 법화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성불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 천 수 만 수억의 부처님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상불경보살품’ 뿐 아니라 <법화경>을 읽다보면 부처님의 수가 한량없이 많음을 묘사한 내용이 수없이 나온다. 우주 전체로 본다면 부처님의 수가 그렇게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고개가 가웃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전을 찬찬히 정독하면 이런 의구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상불경보살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했던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 중생이며, 상불경보살이 법화의 가르침을 설했던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 중생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불을 한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며, 존경하고, 찬탄해 왔다. 그런데 상불경보살은 우리 곁에 있는 모순투성이며, 사악하고, 그래서 혐오스럽

기까지 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부처님께 올렸던 예경을 그대로 올리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까? 물론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생명에는 부처님과 동일한 불성이 있으므로 그 불성을 키우고 지키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방 속에 내재해 있는 불성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예경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예경을 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내재된 불성이 보여진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불경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예경을 올림으로 해서 아득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성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일체 생명에게 예경을 올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성불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주위는 침울하다. 생존해 있는 것이 힘들 만큼 모든 것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각박해지고 주위를 둘러 볼 겨를도 없어진다. 이런 속에서 이해관계라도 얽히다 보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가 십상이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우주 속의 작은 행성인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리고 내 주위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생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경이로운가. 내가 행복해지고 싶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도 행복해 지고 싶어 하고,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도 그들 가족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

을 깨닫고 나면, 생명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연민이 차오르면서 가슴속이 따뜻해져 온다.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상불경보살의 말이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당신도 나처럼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작은 힘으로나마 돕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떨까?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좀 더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갈등의 격랑 속에서 살고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끼리,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자들끼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인들끼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인들끼리,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끼리... 뿐만 아니라 이념으로 갈리고, 생활 수준으로 갈리고, 지역으로 갈리고, 연령으로 갈려서 서로 증오하고 있다.

그러나 잠시 마음을 접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동병상련,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상불경보살은,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처럼 못나고 불품 없는 중생에게 예경을 드림으로써 성불에 이르렀다. 우리도 우리 이웃이 행복에 이르기를 비는 마음으로 새로운 상불경보살이 되어 볼 수는 없을까? 2009년을 밝히는 태양과 더불어서 말이다.

“당신도 나처럼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작은 힘으로나마 돕고 싶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작은 힘으로나마 돕고 싶습니다.”



■ 소설가 남지심

성도절, “우리도 부처님처럼...”

전국 사찰서 성불 발원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한 성도절(음력 12월 8일).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절에는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참선과 절 수행 등 참회 정진행사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 각 사찰에서 ‘지혜의 등 밝히기’ ‘부처님 되신 날 신년 음악회’ ‘성도(成道記) 영화감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도제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불을 발원하는 지리가 마르면 관심을 모은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는 성도제일을 맞아 대중 전체가 수행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의 원력을 세

우는 철야정진법회를 마련했다. 1월 2일 오후 6시 부처님 탄생부터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영화를 상영하고 명상, 인목 스님 법문, 철야정진, 법계도발원 등의 프로그램을 3일 새벽 5시까지 진행한다.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는 1월 2일부터 새해 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철야기도와 참선법회를 병행한다. 2일 오후 10시부터 3일 새벽 5시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송 철야기도법회, 철야참선법회, 108대참회, 새벽기도를 진행한다.

수원 수원사주지 성관은 음악회로 ‘부처님 되신 날’을 맞이하며 구랍 27일부터 8일간 불축기도를 병행한다.

또 1월 2일 오후 7시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마술사 김민형, 소프라노 김윤형,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을 초청해 ‘부처님 되신 날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고 3일 새벽 5시까지 철야정진으로 불심을 다진다.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은 1월 3일 오전 10시 금강사법당에서 금강사부설 자비어린이집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성도절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들의 찬불가 합창과 주민이 직접 준비한 먹거리로 성도절을 축하할 계획이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성도절을 맞아 구랍 27일 연등을 점등하고 3000배 정진기도에 들어갔다. 1월 2

일 오후 8시부터 1월 3일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으로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월 2일 오후 9시부터 3일 새벽 4시까지,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는 1월 2일 오후 7시부터 대웅보전과 효행교육원에서 성도제일 불축 점등식을 갖고 철야정진을 하며 성불의 의지를 다진다. 대전 청림회(회장 효경)는 1월 3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자랑스러운 불자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 및 군법사 공로패 수여식을 병행한다. 공주 동학사(주지 견성)는 구랍 27일부터 1월 3일까지 성도제일 7일 기도를 병행하는 등 전국 사찰에서 다양한 성도절 행사가 준비중이다.

이상민 기자 un82@buddhapia.com

소녀시대, “자비로 나눔시대를 만들어요” JTS 연말 거리모금 캠페인, 연예인 대거 동참



소녀시대 수영(좌), 유리가 JTS거리모금 캠페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150원이면 세계 빈곤국 어린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을 돕는 일에 방송·연예인들이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끈다.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구랍 20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세계어린이 빈곤퇴치 모금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텔런트 배종옥·김여진 씨(JTS홍보대사)와 소녀시대, MBC방송연예인협회 소속 작가, 모델 등 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김영사, 한마음혈액원 직원들이 참가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추운 날씨에도 소녀시대를 비롯한 참가 연예인의 호소에 구름같은 인파가 몰렸다. 거리 모금행사는 명동

역에서 우리은행 앞, 을지로입구역까지 명동 전 일대에 걸쳐 펼쳐졌고, 짜이차 보시, 제3세계 사진 거리전시회도 열렸다. 한편, JTS는 이날 시작한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캠페인을 구랍 24일 전국 13개 도시에서 동시에 전개했다. 노덕현 기자



심신수행으로 좋은 성적거둔 불자체육인 한자리에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이기홍)는 구랍 22일 충무원 2층 회의실에서 2008 베이징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한 불자선수과 지도자 등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선수촌 법당 주지 현종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운영위원장 법장 스님(조계종 교육부장), 권철현 감독(보치아), 문창주 코치(탁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이희숙(양궁 여자 개인), 윤영배(양궁 남자 단체), 정은창(탁구 남자 단체)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상민 기자

교과부, 대학 내 종교시설 건립 등 자유화 조치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종교 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대학 복음

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구랍 22일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및 기관이 사립대학 안에 사찰·교회 등 종교 시설을 비롯해 쇼룸, 헬스클럽 등 각종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내식당, 은행 등 교육지원 시설만 가능했다. 조동섭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액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에카트로닉스 NAVER